

2026년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국제 현충일 쉬임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새로운 부흥에 대한 큰 필요성

메시지 1

주님과 동역하여 이 시대를 끝낼 새로운 부흥을 가져옴

성경: 합 3:2, 행 26:19, 22, 마 14:19, 22-23, 빌 1:19-22, 25, 요 21:15-17

- (합 3:2) “오, 여호와님! 저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 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십시오. /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 (행 26:19)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 (행 26:22)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날까지 서서 작은 사람에게나 큰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 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 (마 14:19) 무리에게 지시하시어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 (마 14:22-23)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²³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려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 (빌 1:19-22)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²⁰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²²그러나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것이 나의 일에 열매가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빌 1:25)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¹⁶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¹⁷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I.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에는 언제나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왔다 — 합 3:2, 호 6:2, 롬 8:20-22, 시 119:25, 50, 107, 154, 요 6:57, 63, 고후 3:3, 6.

(합 3:2) “오, 여호와님! 저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 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십시오. /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호 6:2) 그분께서 이를 뒤에 우리를 살어나게 하시고 / 제삼 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리라.

(롬 8:20-22) 창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²¹창

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²²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시 119:25) 제 혼이 진토에 달라붙었은즉 /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살어나게 해 주십시오.

(시 119:50) 이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저의 위로인 것은 / 주님의 말씀이 저를 살어나게 한 까닭입니다.

(시 119:107) 제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니 / 오, 여호와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살어나게 해 주십시오.

(시 119:154) 저를 변호하시고 저를 구속하여 주십시오. /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살어나게 해 주십시오.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고후 3: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에 판에 쓴 것입니다.

(고후 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II.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에 도달함으로써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딤후 1:3-4, 고전 9:17, 행 26:19, 22).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다루시는 목적과 관련한 위대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답변이다(창 1:26, 욥 10:13, 비교 엡 3:9).

(딤후 1:3-4)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⁴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고전 9:17)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 는 이미 청지기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행 26:19)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행 26:22)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날까지 서서 작은 사람에게나 큰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 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욥 10:13)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 마음속에 감추셨습니다. / 저는 이러한 것이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

(엡 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A.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엡 1:10, 3:9, 딤후 1:4).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담긴 그분의 영원한 의도로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곧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분배해 넣으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과 똑같은 그분의 복사판으로 만드시어(롬 8:29, 요일 3:2), 그들을 하나님의 충만 곧 하나님의 표현(엡 1:22-23, 3:19)을 위해 유기체, 곧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엡 2:15-16),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하시는 것이다(계 21:2-22:5).

(엡 1: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엡 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 (딤후 1: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 (롬 8: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요일 3:2)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엡 1:22-23)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²³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 (엡 3: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엡 2:15-16)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¹⁶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시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 (계 22: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B.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므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정수(精髓)이자,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 창 1:26, 요 12:24, 롬 8:29.

-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 (롬 8: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의 인성에 참여하시으로써 사람이 되셨다. 사람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 요 1:14, 고후 3:18, 골 3:4, 벨후 1:4, 빌 2:5, 롬 8:29, 히 2:10, 엡 1:5, 롬 8:19, 요일 3:2, 요 1:12-13.
-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 (벨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빌 2: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롬 8: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 2: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엡 1: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롬 8:19)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일 3:2)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2. 이러한 신성하고 인간적인 로맨스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며, 우주 전체의 비밀이다 — 아 1:1, 6:13, 비교 합 1:1, 2:4, 롬 1:17.

(아 1:1) 솔로몬의 아가.

(아 6:13) “돌아와요, 돌아와요, 솔람미여 /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 솔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합 1:1) 신언자 하박국이 본 부담이다.

(합 2:4) 보라, 교만에 빠진 자를. 그의 혼은 그 안에서 울곧지 않으나 /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롬 1:17)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a. 그리스도는 신성하시고 인간적이며, 그분의 변화된 연인은 인간적이고 신성하다. 그들은 생명과 본성에서 동일하며 서로 완전히 어울린다.

b. 완결되시어 남편이 되신 삼일 하나님과 변화되어 신부가 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은 한 부부, 곧 단체적이며 위대한 하나님-사람이 된다 — 계 21:2, 9, 22:17상.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 22:17상)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C. 하나님의 중심 계시이자 주님의 회복의 중심 계시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요 1:1, 14),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며(고전 15:45하), 생명 주시는 영은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계 1:4, 3:1, 4:5, 5:6) 교회를 건축하시고(마 16:18),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엡 4:15-16)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는 것이다(계 21:2, 9, 22:17상, 비교 창 2:22, 요 19:34).

(요 1: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계 1: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계 3: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계 4:5)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계 5: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 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마 16: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엡 4:15-16)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¹⁶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 22:17상)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창 2:22)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요 19:34)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D. 하나님과 사람은 한 실체가 될 것이고, 그 한 실체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이러한 연합은 성경 전체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 계 21:3, 22, 2, 9, 비교 레 2:4-5, 시 92:10.

(계 21: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계 21: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레 2:4-5) 네가 화덕에 구운 것을 소제물로 바칠 경우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무교 과자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바쳐야 한다. ⁵네가 바치는 제물이 철판에 구운 소제물이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누룩 안 든 것이어야 한다.

(시 92:10) 그러나 주님께서 제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기에 / 저는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부음을 받았 습니다.

E. “나는 온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이 계시를 보

고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새로운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기 바란다.” — 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 22쪽.

Ⅲ.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실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단체적인 본,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사는 본이 세워질 것이다. 이 본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되어 주님을 다시 모셔 올 것이다 — 시 48:2과 각주 1, 계 3:12, 21.

(시 48:2) 우뚝 솟아 아름다우며 / 온 땅의 기쁨인 / 복편 끝 시온산! / 이는 크신 왕의 성이라네.

(계 3: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계 3: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A.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통해 일으켜져 이 계시에 따라 생활하는 단체적인 한 백성이 필요하시다. 부흥은 우리가 본 이상을 실행하는 것이자 이상이 실행된 상태이다.

B.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마 5:1, 28:19)은 하나님-사람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인간 생활을 통해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인성에 있어서 그분 자신을 부인하심으로 써 하나님을 사셨는데(요 5:19, 30), 이러한 그분의 인간 생활은 사람에게 관한 그들의 관념을 혁신시켰다(빌 3:10, 1:21상).

(마 5:1) 예수님께서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마 28: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요 5:19)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요 5: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빌 3: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빌 1:21상)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C. 우리의 생활은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생활의 본의 복사판이자 재생산이어야 한다 — 벰전 2:21, 마 11:28-29, 엡 4:20-21, 요 17:4, 5:17, 빌 1:19-22, 25.

(벰전 2:21)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마 11:28-29)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²⁹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엡 4:20-21)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²¹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요 17:4)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요 5:17)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빌 1:19-22)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²⁰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²²그러나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것이 나의 일에 열매가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빌 1:25)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D.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신, 생명과 실재의 영은 제자들이 삼 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지켜본 것의 모든 실재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셨다 — 요 16:13, 20:22.

(요 16:13) 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20: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1.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사역의 시작에서 그분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육체(그분의 인성 — 요 1:14, 롬 1:3, 8:3)에 따르면 자신이 죽고 장사되기에만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마 3:15-17).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롬 1: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롬 8: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마 3:15-17)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시자, 요한이 허락하였다. ¹⁶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¹⁷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2.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분에게서 배우도록 훈련시키셨다(마 11:29).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복하신 것(마 14:19)은 축복의 근원이 보내심을 받은 자신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신 아버지이신 것을 인식하셨음을 가리킨다(요 10:30, 5:19, 30, 7:6, 8, 18).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 14:19) 무리에게 지시하시어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요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요 5: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요 5: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 7: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7:8) 여러분은 명절을 지내러 올라가십시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내가 지금은 이 명절을 지내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요 7:18)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3.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산에서 기도하시며 은밀히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 마 14:22-23, 눅 6:12.

(마 14:22-23)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²³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눅 6:12)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4. 주님은 하나님을 접촉하시며(막 1:35, 눅 5:16, 6:12, 9:28, 히 7:25)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생활을 하셨고(행 10:38상, 요 8:29, 16:32), 사람들을 접촉하며 하나님을 그들 안에 공급하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희년 안으로 이끄는 생활을 하셨다(눅 4:18-19, 히 8:2, 비교 창 14:18, 행 6:4).

(막 1:35)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외딴곳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니,

(눅 5:16)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눅 6:12)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눅 9:2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히 7:25)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시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행 10:38상)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 8:29)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 16:32) 보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자기 갈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올 것인데, 그 때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눅 4:18-19) “주님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어 포로 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¹⁹주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 8:2) 그분은 거룩한 곳들의 사역자, 바로 참장막의 사역자이십니다. 그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창 14:18)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행 6:4)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5. 주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그 어떤 일에서도 아무런 입지나 기회나 희망이나 가능성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셨다 — 요 14:30하, 비교 20절, 고후 12:2상, 골 1:27, 딤후 4:22, 요 3:6하, 4:23-24, 요일 5:4, 18.

(요 14:30하)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요 14: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고후 12:2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

(골 1: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 3:6하)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 4:23-24)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²⁴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요일 5:4)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일 5:18)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자신을 지키므로, 악한 자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E. 주님의 본에 따라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전 존재를 연합된 영에 두고, 연합된 영에 따라 행하고 살며 처신하는 것이다 — 롬 8:2, 4, 10, 6, 11, 16, 고전 6:17, 롬 10:12, 갈 5:25, 엡 6:17-18, 살전 5:16-20, 딤펴전 4:6-7, 딤후 1:6-7.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8: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롬 10: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갈 5: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엡 6:17-18)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¹⁸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살전 5:16-20) 항상 기뻐하십시오. ¹⁷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¹⁸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¹⁹그 영을 끄지 마십시오. ²⁰신언을 떨치지 마십시오.

(딤펴전 4:6-7)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⁷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딤후 1:6-7)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⁷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F. “우리는 모두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선포해야 한다. 결국 하나님-사람들은 승리자들, 이기는 이들, 예루살렘 안의 시온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 올 것이고, 이 시대를 끝낼 것이다.” — 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37쪽.

IV. 우리가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기 위해,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 요 21:15-17, 벰전 2:25, 5:1-4, 히 13:20-21, 계 1:12-13.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¹⁶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¹⁷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벰전 2: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벰전 5:1-4)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²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³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 떼의 본이 되십시오.⁴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히 13:20-21)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² 온갖 선한 일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 1:12-13)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¹³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A.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역에서 보여 주신 본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해야 한다 — 마 9:36, 요 10:11, 히 13:20, 벰전 5:4.

(마 9:36)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 버려졌기 때문이다.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히 13: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벰전 5: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보양하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심으로써, 즉 그분의 죽음을 통해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를 보살피시며(딤펴전 1:15, 엡 1:7),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보양하심으로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넘치게 나누어 주시어, 부활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고 계신다(요 10:10, 고전 15:45하, 엡 5:29).

(딤펴전 1:15)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엡 1:7)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엡 5:29)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2.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구주의 목양하고 찾는 영이 없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이다 — 눅 15:1-24.

(눅 15:1-24)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다가오자, ²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대며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구나.”라고 하니, ³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⁴“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⁵그러다가 찾아내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⁶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⁷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입니다. ⁸또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열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한 개를 잃어버린다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찾지 않겠습니까? ⁹그러다가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¹⁰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¹¹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¹²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¹³그 후 며칠이 못 되어, 작은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여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¹⁴그가 모든 것을 다 써 버렸을 때에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핍하게 되자, ¹⁵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를 자기 밭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¹⁶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¹⁷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¹⁸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¹⁹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겠다. ²⁰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²¹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²²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겹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²³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²⁴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3.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며(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야 하며)(마 9:10, 눅 7:34),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양해야 한다(세 단계의 사역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여야 한다)(마 24:45-47).

(마 9:10)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으시어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눅 7:34)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니, 여러분이 ‘보아라, 탐식가요,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합니다.

(마 24:45-47)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⁴⁶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⁴⁷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4. 그리스도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다가 의도적으로 우회하여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야 했는데, 이는 부도덕한 한 여인을 얻으시기 위해서였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시며 그 여인을 소중히 보살피셨는데, 이는 생명수의 강으로서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으로 그 여인을 보양하시려는 것이었다 — 요 4:3-14, 계 22:1.

(요 4:3-14) 유대를 떠나시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4사마리아를 거쳐 가서야만 했다. 5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가셨다. 그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6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시어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육 시쯤이었다. 7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으러 오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8왜냐하면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기 때문이다. 9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은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라고 말하였다(이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10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대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11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선생님은 물 길을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12야곱 조상께서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분 자신과 그 자손들과 가축이 이 우물물을 마셨는데, 선생님께서 그분보다 더 위대하십니까?”라고 하니, 13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14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계 22: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5. 죄 없는 분이신 주님은 간음한 여인을 유죄판결 하지 않으시고 법리적으로는 죄들을 용서하시고 유기적으로는 죄들에서 해방하심으로써 보살피셨다(요 8:1-11, 32, 36).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첫 번째로 구원하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였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눅 23:42-43).

(요 8:1-11) 그러나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2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자, 백성이 모두 그분께 나아왔으며, 그분은 앉으시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3그러나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고, 4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5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인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6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유혹하여 고발할 구실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계셨다. 7그들이 끈질기게 묻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8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글을 쓰고 계셨다. 9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고, 예수님만 혼자 남게 되셨으며, 그 여인은 한가운데 서 있었다. 10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를 유죄판결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11그 여인이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그대를 유죄판결 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요 8:32)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요 8:36)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눅 23:42-43) 그리고 그가 “예수님,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43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6. 주님은 단지 세리장 한 사람을 방문하여 얻으시려고 예리고에 가셨으며, 이러한 주님의 복음 전파는 일종의 목양이었다(눅 19:1-10). 주님은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심으로써 그들의 부모를 보살피셨다(마 19:13-15).

(눅 19:1-10)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들어가셔서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2마침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

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다. ³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⁴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질러 달려가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곧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⁵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시어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니, ⁶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⁷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모두 “그가 죄인과 함께 묵으려 들어갔구나.”라고 하며 투덜거렸다. ⁸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니, ⁹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¹⁰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 19:13-15)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으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 ¹⁴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시니 ¹⁵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신 후, 거기서 떠나가셨다.

B.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기 위해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목양했다 — 살전 2:7-8, 11-12, 딤펴 1:16, 행 20:28.

(살전 2:7-8)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같이 하였습니다. ⁸여러분을 이처럼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전 2:11-12)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증언했습니다. ¹²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딤펴 1:16)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활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 주심으로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행 20: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1. 바울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행 20:20) 에베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삼 년 동안 눈물로 성도들 각 사람을 훈계하며(31, 19절), 하나님의 모든 의결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써(27절) 그들을 목양했다.

(행 20:20) 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행 20: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행 20:19) 나는 모든 겹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다친 시련도 겪었습니다.

(행 20:27) 왜냐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의결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2.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친밀한 관심을 가졌으며(고후 7:2-7, 몬 7, 12),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그들의 수준에까지 내려갔다(고후 11:28-29, 고전 9:22, 비교 마 12:20).

(고후 7:2-7) 마음을 넓혀 우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괴롭힌 적이 없고, 아무도 해롭게 한 적이 없으며, 아무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³내가 여러분을 유죄판결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정도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⁴나는 여러분을 향해서는 매우 담대하며, 여러분에 대해서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로 충만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⁵우리가 마케도

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신에 아무런 안식이 없었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⁶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⁷그가 온 것으로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다는 것과 애통하고 있다는 것과 나를 위하여 열정이 있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전해 주므로, 나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몬 7) 왜냐하면 성도들의 속부인들이 그대를 통하여 상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대의 사랑에 대하여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님.

(몬 12)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고후 11:28-29) 이 밖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만두더라도,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많은 염려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²⁹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질려 넘어지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고전 9:22)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마 12:20) 그가 정의를 가져와 승리하기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3.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가진 것 곧 그의 소유물을 기쁘게 소비하고, 그의 존재 곧 그 자신까지도 기쁘게 소비하고자 했다(고후 12:15). 그는 전제물로서, 곧 포도주를 생산하는 분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다(빌 2:17, 사 9:13, 엡 3:2).

(고후 12:15)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소비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빌 2:17)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 9:13)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였소. '나더러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복돋아 주는 새 포도주를 내는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건들거리란 말이오?'

(엡 3: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4. 바울은 그 영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함으로써 그 영을 공급하여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었다 — 고후 3:3, 6, 8, 갈 5:16, 25, 사 9:9.

(고후 3: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고후 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계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후 3:8)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갈 5:16)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갈 5: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사 9:9)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였소. '나더러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기름을 내는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건들거리란 말이오?'

5. 바울은 그의 가르침에서 교회가 사람들을 양육하는 가정이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병원이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학교임을 시사했다 — 엡 2:19, 살전 5:14, 고전 14:31.

(엡 2:19)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살전 5:14)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게 또 권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고전 14:31)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6.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임을 제시했다 — 고전 8:1, 12:31, 13:4-8상, 엡 1:4, 3:17, 4:2, 15-16, 5:2, 6:24, 계 2:4-5, 골 1:18하, 살전 1:3.

(고전 8:1) 우리는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 제물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고전 12:31)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가 또한 가장 뛰어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고전 13:4-8상)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⁵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⁶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⁷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⁸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엡 1: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엡 3: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엡 4:2)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엡 4:15-16)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¹⁶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엡 5: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엡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계 2:4-5)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⁵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골 1:18하)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살전 1:3)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C. “나는 우리가 목양에 관한 이러한 부담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바란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회복 안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 활력 그룹, 개정판, 4장, 68쪽.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함

성경: 딤편 1:4, 엠 1:10, 3:9, 롬 1:3-4

- (딤편 1: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 (엠 1: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엠 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 (롬 1:3-4)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I.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이다.

A.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설명인 성경 전체는 영원의 두 부분과 시간이라는 다리에서 볼 수 있는 삼일 하나님의 자서전이다.

- 삼일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직접 움직이시기 위해 영원에서부터 시간 안으로 오시고,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인성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육체 되신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은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다 — 요 1:14, 29.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 부활 안에서 그분은 복합되신 하나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것은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볼 수 있다 — 요 1:32, 42, 고전 15:45하, 빌 1:19.
(요 1:32)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그 영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 1:42)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를 주의 깊게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가 게바라 불릴 것입니다(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빌 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 영원 미래에 그분은 단체적인 하나님, 곧 새 예루살렘이 되실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볼 수 있다.
-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믿는 이들의 우주적이며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이다 — 요 1:51, 계 21:3, 22.
(요 1: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

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 21: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계 21: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5. 하나님의 중심 계시와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며, 생명 주시는 영이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를 건축하신다는 것이다.

B.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본질이자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 창 1:26, 요 12:24, 롬 8:29.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롬 8: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의 인성에 참여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다. 사람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된다.

a.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 요 3:15, 골 3:4.

(요 3: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b.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 엠 1:4, 벧후 1:4.

(엠 1: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벧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c.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함으로써 — 엠 4:23, 빌 2:5.

(엠 4: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빌 2: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d.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함으로써 — 고후 3:18하, 엠 3:8.

(고후 3:18하)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엠 3: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e.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함으로써 — 고후 3:18상, 롬 8:29.

(고후 3:18상)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롬 8: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 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이들 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f.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 롬 8:30, 히 2:10.

(롬 8: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 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히 2: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 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 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g.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함으로써 — 엡 1:5, 롬 8:23.

(엡 1: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 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롬 8: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h.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참여함으로써 — 롬 8:19.

(롬 8:19)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 니다.

i. 하나님의 모양을 지님 — 요일 3:2.

(요일 3:2)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 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j. 하나님 종류, 곧 하나님 종(種)이 됨 — 요 1:12, 롬 8:14, 16.

(요 1: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롬 8: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 니다.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2. 이러한 신성하고 인간적인 로맨스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며, 우 주 전체의 비밀이다 — 아 1:1, 6:13.

(아 1:1) 솔로몬의 아가.

(아 6:13) “돌아와요, 돌아와요, 솔람미여 /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 “너 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 솔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II. 신성한 계시의 고봉, 곧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대한 계시이다 — 삼하 7:12-14상, 롬 1:3-4, 엡 3:17상.

(삼하 7:12-14상) 네 날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네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¹³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¹⁴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 들이 될 것이다.

(롬 1:3-4)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⁴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 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엡 3:17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 A.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된다’ — 딤후전 1:4.
 (딤후전 1: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 B.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되어, 그분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이 사람의 미덕들로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 — 엡 3:9, 1:10.
 (엡 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엡 1: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사람과 하나 되시고,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다 — 엡 1:5, 9.
 (엡 1: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엡 1: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2.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그분 자신을 대량 재생산하심으로써 새로운 종류 곧 하나님-사람 종류를 산출하는 것이다 — 요 1:1, 14, 12:24.
 (요 1: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 C.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 성분으로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어,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 엡 3:17상, 골 3:4, 10-11.
 (엡 3:17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대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¹¹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D.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은 거듭남과 거룩하게 됨과 새롭게 됨과 변화 됨과 같은 형상이 됨과 영광스럽게 됨을 통해 하나님이 된다 — 요 3:5-6, 1:12-13, 롬 6:19, 22, 12:2, 8:29-30.
 (요 3:5-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⁶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 (롬 6:19) 여러분의 육체가 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게 노예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드러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 (롬 6:22)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 (롬 8:29-30)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³⁰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Ⅲ.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써만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될 수 있다. 이 요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의 고봉이다 — 롬 8:3, 1:3-4, 8:14, 12:4-5.

- (롬 8: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 (롬 1:3-4)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⁴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롬 8: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 (롬 12:4-5)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⁵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A.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기 위한 것인데, 이 몸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며 이 몸의 궁극적인 나타남은 새 예루살렘이다 — 엡 1:22-23, 4:4-6, 계 21:2, 9-10.

- (엡 1:22-23)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²³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 (엡 4:4-6)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⁵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⁶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 (계 21:9-10)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¹⁰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B. 성경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유기체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 롬 1:3-4, 12:4-5.

- (롬 1:3-4)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⁴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롬 12:4-5)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⁵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1. 이 유기체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결합시키고 연합시키시어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결과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이 유기체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과 연합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 엡 4:4-6, 12.
 (엡 4:4-6)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⁵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⁶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엡 4: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C.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사람이 되게 하셨고,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러한 생활이 그분과 똑같은 우주적인 한 사람, 곧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산출한다 — 롬 8:3, 12:4-5.
 (롬 8: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롬 12:4-5)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⁵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 D.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한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을 살아 내는 것이다 — 엡 4:4-6, 24.
 (엡 4:4-6)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⁵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⁶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엡 4:24)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새로운 부흥을 위한 하나님-사람의 생활

성경: 레 1:3, 9, 6:8-13, 요 21:15-17, 요일 3:14, 5:1, 2:6, 4:17, 갈 6:2-3, 롬 8:2

- (레 1:3) 만일 제물을 소 떼에서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그는 흠 없는 수컷을 바치되,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 (레 1:9) 그가 그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으면,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번제물이고 화제물이며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이다.
- (레 6:8-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⁹“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¹⁰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며, 맨살에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 그는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고서, ¹¹그 의복을 벗고 다른 의복을 입은 다음, 그 재를 진영 밖 깨끗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¹²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불 피우고, 그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 그 위에서 화목제물의 기름 덩이를 태워야 한다. ¹³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¹⁶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¹⁷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 (요일 3:14)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거합니다.
- (요일 5:1)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 분에게서 난 사람도 사랑합니다.
- (요일 2:6)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직접 행해야 합니다.
- (요일 4:17)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갈 6:2-3)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³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I.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의 실제 상태인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엡 4:21)가 실제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 안에 복사되어, 새로운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20-24절).

- (엡 4: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 (엡 4:20-24)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²¹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²²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²³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²⁴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A.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생활의 본, 곧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생활의 틀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는 생활을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의 의미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 롬 8:28-29, 엡 4:20-21.

(롬 8:28-29)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²⁸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엡 4:20-21)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²¹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B.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함으로 신성한 생명을 사는 하나님-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 의해 온전하게 되고 있다 — 마 11:29상, 17:5하, 벤전 2:21.

(마 11:29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십시오.

(마 17:5하)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벤전 2:21)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1.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 계시된 대로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의 본을 세우셨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통하여 그분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 고전 15:45하, 골 3:4.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2.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우리는 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며, 이 실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 고전 1:30, 고후 5:17, 12:2상, 골 1:27, 갈 2:20, 롬 8:10.

(고전 1: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고후 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고후 12:2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

(골 1: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 C.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복음서들에 묘사된 틀, 모습, 본에 따라 그분을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들의 형상으로 형태 지어지고 이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의 의미이다 — 마 11:29, 롬 8:29.
-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 (롬 8: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D.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실재의 영에 의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그분에게서 배움으로 그분의 전기(傳記)가 우리의 역사(歷史)가 되게 한다.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복음서들에 계시된 예수님의 생활과 똑같아야 한다 — 갈 6:17-18, 롬 1:1, 9, 엡 4:20-24, 빌 2:5, 마 11:29, 벰전 2:21.
- (갈 6:17-18)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¹⁸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 (롬 1:1)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 (롬 1: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 (엡 4:20-24)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²¹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²²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²³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²⁴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 (빌 2: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 (벰전 2:21)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 E.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은 그분께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분을 먹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그분과 똑같은 우주적이고 위대한 사람, 곧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다 — 애 3:22-24, 55-56, 계 2:4, 7, 요 6:57, 63, 렘 15:16, 엡 6:17-18, 시 119:15.
- (애 3:22-24) 여호와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²³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²⁴'여호와와는 나의 몫 / 그러기에 나 그분께 소망을 둔다네.' 하고 내 혼은 말한다네.
- (애 3:55-56) "오, 여호와님! 저는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서 /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⁵⁶주님은 제 음성들을 들으셨으니 / 제 호흡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 (계 2:4)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렘 15:16)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 주님의 말씀이 제게 /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에 6:17-18)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¹⁸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시 119:15)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II.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생활을 반복하는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은 번제물로서 여러 체험을 겪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활이다 — 레 1:9, 요 8:29, 고후 5:9.

(레 1:9) 그가 그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으면,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번제물이고 화제물이며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이다.

(요 8:29)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고후 5:9)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을 떠나서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A. 번제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번제물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1:3, 민 28:2-3, 요 5:30, 6:38, 8:29, 히 10:5-10.

(레 1:3) 만일 제물을 소 떼에서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그는 흠 없는 수컷을 바치되,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민 28:2-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나의 제물, 나의 음식 곧 나를 만족시키는 향기인 화제물을 정해진 때에 내게 삼가 바쳐야 한다.’ ³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에게 바쳐야 할 화제물은 이러하다.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숫양 두 마리를 매일의 번제물로 날마다 바쳐야 한다.

(요 5: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 6: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 8:29)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히 10:5-1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⁶주님은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⁷그때 저는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오, 하나님!’” ⁸위의 말씀에서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라고 하셨습니다(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러지는 것입니다). ⁹그 후에 그리스도는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첫 번째 것을 폐지하시는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¹⁰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만에 영원히 드러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B. ‘번제물’로 번역된 단어는 ‘위로 올라가는 어떤 것’을 뜻한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레 1:3, 10, 14). 땅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활인데,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생활을 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요 6:38).

(레 1:3) 만일 제물을 소 떼에서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그는 흠 없는 수컷을 바치되,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레 1:10) 만일 그가 제물을 작은 가축 떼에서,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레 1:14) 만일 그가 여호와에게 바치는 제물을 새들 가운데에서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 가운데에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요 6: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C. 번제물은 ‘여호와의 만족시키는 향기’였다(레 1:9). ‘만족시키는 향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직역하면 ‘안식의 향기’ 혹은 ‘만족의 향기’를 의미한다. 만족시키는 향기는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향기이다. 만족시키는 이러한 향기는 하나님께 누림이 된다.

(레 1:9) 그가 그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으면,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번제물이고 화제물이며 여호와의 만족시키는 향기이다.

D.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번제물의 실재이다. 이 생명은 순종의 생명, 복종의 생명,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생명이다 — 빌 2:8, 요 5:19, 30, 히 5:8, 10:7.

(빌 2: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 5: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요 5: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히 5:8)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 10:7) 그때 저는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오, 하나님!’ ”

1.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밖에서 홀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 시 40:7-8, 요일 3:4.

(시 40:7-8) 그때 저는 아뢰었습니다. / “보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 두루마리 책에 / 저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8오, 저의 하나님! 주님의 뜻 행하는 것을 제가 기뻐하니 / 참으로 제 속부들에는 주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요일 3:4) 죄짓는 것을 일삼는 사람마다 불법을 일삼는데, 죄는 불법입니다.

2.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눅 18:17)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어린이처럼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항상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자기 확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원수이다.

E. 합당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며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신 생활 곧 번제물의 생활을 우리 안에서 반복하신다 — 레 1:4, 고전 6:17, 갈 2:20.

(레 1:4)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한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져 그를 위하여 속죄를 이룰 것이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

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F. 이러한 연결, 곧 이러한 동일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결함과 흠을 가져가신다 — 고후 5:21, 갈 2:20상.

(고후 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갈 2:20상)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G.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태우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지속적인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태울 수 있고, 또 재로 감소되어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 시 20:3, 레 1:16, 6:8-13, 고전 3:12상, 계 3:12, 21:2, 10-11, 18-21.

(시 20:3) 그대의 모든 소제물을 기억하시며 / 그대의 번제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란다네. 셀라

(레 1:16) 그는 그 제물의 모이주머니와 깃털을 떼 내어 제단 동쪽에 있는 재 버리는 곳에 버려야 한다.

(레 6:8-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⁹“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¹⁰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며, 맨살에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 그는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고서, ¹¹그 의복을 벗고 다른 의복을 입은 다음, 그 재를 진영 밖 깨끗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¹²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불 피우고, 그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 그 위에서 화목제물의 기름 덩이를 태워야 한다. ¹³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고전 3:12상)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계 3: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10-11)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¹¹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계 21:18-21)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나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¹⁹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²⁰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귀감랍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풍신자석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²¹또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나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1. 재는 감소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감소되어 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감소되어 재가 된다. 즉 감소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 무(無)가 된다 — 막 9:12, 사 53:3, 고전 1:28, 고후 12:11.

(막 9:12)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복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 53:3) 그는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 슬픔의 사람이요 비통을 아는 사람이었다. /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처럼 / 그는 멸시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고전 1:28)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출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어

(고후 12:11)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마땅히

추천을 받았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특출한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죽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될수록 자신이 한 줌의 재가 되었음을 더욱더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재가 될 때 더 이상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종결되고 불태워진 사람이다 — 갈 2:20상.

(갈 2:20상)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 H. 재를 제단 동쪽, 해가 뜨는 곳에 두는 것은 부활을 함축한다 — 레 1:16, 요 11:25, 빌 3:10-11, 고후 1:9.

(레 1:16) 그는 그 제물의 모이주머니와 깃털을 떼 내어 제단 동쪽에 있는 재 버리는 곳에 버려야 한다.

(요 11: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빌 3:10-11)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고후 1:9)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넘겨지신 것을 의미하지만, 동쪽은 부활을 상징한다 — 막 9:31.

(막 9:31)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고, 죽은 지 삼 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소되어 재가 될수록 더욱더 동쪽에 두어질 것이고,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 부활의 일출을 체험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 빌 3:10-11.

(빌 3:10-11)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 I. 결국 재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 계 3:12, 21:2, 10-11.

(계 3: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10-11)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끝내고 감소시켜 재가 되게 하며, 부활 안에서 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가 된다 — 고전 3:9하, 12상.

(고전 3:9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고전 3:12상)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 감소되어 재가 될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일 안으로 이끌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된다 — 롬 12:1-2, 고후 3:18, 계 21:18-21.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²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도록 하십시오.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계 21:18-21)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¹⁹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²⁰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풍신자석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²¹또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Ⅲ. 번제물의 실재이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의 신약 사역을 수행하실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요 5:19),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으며(4:34, 17:4),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14:10, 24), 자신의 뜻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으며(5:30),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7:18). 그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셨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다(사 42:4, 50:4-5, 53:2상, 비교 요 4:13-14, 6:15, 막 9:7-8).

(요 5: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요 4: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요 17:4)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요 14: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 14:24)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 5: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 7:18)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사 42:4) 땅에 정의를 확립할 때까지 / 그는 피곤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으리니 / 해안 지역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리라.”

(사 50:4-5)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⁵주 여호와께는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며 / 나는 거역하지 않았고 / 돌아서지도 않았다.

(사 53:2상) 이는 그가 그분 앞의 연한 식물처럼, /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라난 까닭이라.

(요 4:13-1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¹⁴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요 6:15) 예수님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막 9:7-8)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⁸그들이 즉시로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 A. 주님의 생활은 주님의 일과 움직임과 사역이었다. 그분의 일은 그분의 생활이었고, 그분의 움직임은 그분의 존재였다. 그분께는 그분의 생활과 일과 움직임과 사역이 차이가 없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사셨다 — 비교 눅 22:26-27, 요 10:10하, 고전 15:45하, 요일 5:16상, 고후 3:6, 빌 1:25.
- (눅 22:26-27)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인도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²⁷누가 더 큼니까? 상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 (요 10:10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 (요일 5:16상)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 (고후 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 (빌 1:25)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 B. 주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다. 그분은 기도하시기 위해 자주 산으로 가지거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물러가셨다 — 마 14:23, 막 1:35, 눅 5:16, 6:12, 9:28.
- (마 14:23)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 (막 1:35)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외딴곳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니,
- (눅 5:16)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 (눅 6:12)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 (눅 9:2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 C.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분은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셨다 — 마 14:22-23.
- (마 14:22-23)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²³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1.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마 3:17) 사람의 위치에 서 계시는(4:4) 하늘의 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은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시기 위해서였다.

(마 3:17)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마 4: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그분은 외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아버지를 접촉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까지 떠나 산에서 기도하셨다.
- D.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기도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계시므로 그분은 결코 혼자 계시지 않았다. 매 순간 그분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 요 5:19, 16:32, 시 16:7-8, 비교 27:8.

- (요 5: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 (요 16:32) 보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자기 갈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 (시 16:7-8) 제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 참으로 밤마다 저의 속부분들이 저를 가르칩니다. ⁸제가 항상 제 앞에 여호와를 모시어 / 주님께서 제 오른편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 (시 27:8)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시다.

IV. 우리가 하나님 자신인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이다’(요일 4:17). 번제물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요일 3:14, 5:1, 2:6).

(요일 3:14)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거합니다.

(요일 5:1)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난 사람도 사랑합니다.

(요일 2:6)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직접 행해야 합니다.

A.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다(롬 8:2, 갈 6:2). 사랑의 법이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실질화되어야만 우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여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다(갈 6:3).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갈 6:2)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갈 6:3)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B.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우리는 자동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고 찾는 영을 가진 목자들이 될 것이다 — 요 21:15-17, 눅 15:3-7.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¹⁶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¹⁷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눅 15:3-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⁴“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⁵그러다가 찾아내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⁶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⁷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하늘에서 더 기뻐할 것입니다.

- C.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고전 15:58)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행 20:35)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살전 5:14) 사랑의 수고가 된다(살전 1:3). '연약한 사람들'은 영이나 혼이나 몸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롬 14:1, 15:1).

(고전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행 20:35) 내가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하고,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전 5:14)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게 또 권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살전 1:3)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롬 14:1)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견해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롬 15: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짚어줘야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 D.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목양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는 위임을 주셨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켜 하나님의 양 떼인 교회를 돌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돌보는 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으로 귀결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할 것이다 — 요 21:15-17.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¹⁶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¹⁷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메시지 4

신성한 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삶으로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함

성경: 막 1:15, 요 3:3, 5-6, 1:12-13, 벡후 1:4, 요일 3:1

- (막 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 (요 3: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 (요 3:5-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 (벡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요일 3:1)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도록,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I.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종(種)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다 — 요 3:3, 5-8.

- (요 3: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 (요 3:5-8)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⁷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나야 한다고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불니다. 그대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 영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II. 하나님-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종에 참여할 신성한 권리가 있다 — 요 3:3, 5-6, 18:36.

- (요 3: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 (요 3:5-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 (요 18:3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하인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III.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다 — 막 1:15, 요 14:17하, 20, 롬 8:9상, 10, 갈 5:25.

- (막 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 (요 14:17하)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요 14: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롬 8:9상)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에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갈 5: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A.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조성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조성됨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되어 한 실체가 되었다. 이 한 실체를 우리는 하나님-사람이라고 부른다 — 마 1:21, 23, 눅 1:35, 딤후 2:13, 딤후전 2:5.

(마 1:21)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시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1:23)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눅 1: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딤후 2:13) 복된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지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딤후전 2:5)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B.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복사판이자 연장이다 — 요 12:24, 히 2:10, 롬 8:29.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히 2: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롬 8: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C. 하나님-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여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 요 1:12-13, 3:15, 벧후 1:4, 고전 6:17.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 3: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벧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D. 하나님-사람은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을 그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으로 소유한다. 하나님-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지만 사람이다 — 엡 3:16-17상.

(엡 3:16-17상)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E.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은 사람이 하나님을 살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간 미덕들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분의 인간 미덕들은 신성한 속성들로 채워지고 신성한 속성들과 연합되고 신성한 속성들로 적셔졌다 — 눅 1:26-35, 7:11-17, 10:25-37, 19:1-10.

(눅 1:26-35) 그 후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게서 보냄 받아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에 가서, ²⁷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²⁸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였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²⁹마리아가 그 말에 매우 당황하며 ‘이런 인사가 무슨 뜻일까?’라고 하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³⁰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³¹보십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³²그분은 위대하신 분이 되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니, ³³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이 무궁할 것입니다.” ³⁴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안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³⁵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눅 7:11-17)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도 함께 따라갔다. ¹²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데, 죽은 이는 외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 성의 많은 사람이 과부와 함께 뒤따르고 있었다. ¹³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울지 마십시오.”라고 하시고는 ¹⁴다가가시어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청년아,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¹⁵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¹⁶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대한 신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라고 하였다. ¹⁷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부근 모든 지방에 두루 퍼졌다.

(눅 10:25-37) 보아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²⁶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라고 하시자, ²⁷그가 대답하였다. “‘그대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대의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²⁸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옳바로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살 것입니다.” ²⁹그러나 그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³⁰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반쯤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 버렸습니다. ³¹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으며, ³²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³³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³⁴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며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으며, ³⁵이튿날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³⁶그대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³⁷그러자 그가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도 가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

(눅 19:1-10)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서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²마침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다. ³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⁴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질러 달려가서 들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곧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⁵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시어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니, ⁶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⁷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모두 “그가 죄인과 함께 묵으러 들어갔구나.”라고 하며 투덜거렸다. ⁸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니, ⁹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¹⁰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F.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재생산과 복사판인 우리는 그분께서 사신 것과 똑같은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한다.

1.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기 위한 본을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표현되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 갈 2:20.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2. 주 예수님은 영적이 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삶을 사셨다.
3.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신 것을 보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도 그러한 생활을 한 것을 본다.
4. 그리스도는 고난의 삶, 곧 고난받는 삶을 사셨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동반자들로서 동일한 종류의 삶을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간주하신다 — 히 3:14.

(히 3:14)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될 것입니다.

5.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며, 그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그분을 확대해야 한다 — 마 16:24, 빌 3:10, 1:19-21상.

(마 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빌 3: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빌 1:19-21상)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²⁰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6.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신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살고 계신 그 영이시다. 우리는 반드시 자기 수양을 하거나 타고난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거절해야 하고, 그분 외의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우고 점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단체적으로 그분을 살고 표현할 수 있다 — 엡 3:16-19, 1:22-23.

(엡 3:16-19)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¹⁸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¹⁹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엡 1:22-23)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²³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IV.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다 — 롬 14:17.

(롬 14: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A.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자신이다 — 막 1:15, 마 6:33.

(막 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마 6:33)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B.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과 이 생명의 모든 활동의 총체인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이다 — 요 11:25, 10:10하, 14:6.

(요 11: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요 10:10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 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C.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영역으로서, 이 생명이 움직이고 일하고 다스리고 통치함으로써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D.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한 유기체로서, 그분의 다스림을 위한 생명의 영역이다.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에 의해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신성한 삼일성이신 그분 자신을 신성한 생명 안에서 표현하신다 — 요 15:1-8, 16, 26.

(요 15:1-8)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²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이 손질하십니다. ³내가 여러분에게 일러 준 말로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졌으니, ⁴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⁵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⁶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웁니다. ⁷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⁸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되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요 15:16)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5:26)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E.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통치의 영역일 뿐 아니라, 모든 신성한 것들이 있는 신성한 종(種)의 영역이다 — 요 3:3, 5-6, 18:36.

(요 3: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요 3:5-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⁶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 18:3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하인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1.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하나님 종을 가리킨다.
2. 하나님은 사람 종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은 신성한 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 요 1:1, 12-14, 롬 8:3, 1:3-4.

(요 1: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 1:12-14)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¹⁴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롬 8: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롬 1:3-4)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⁴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 신성한 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져야 한다 — 요 1:12-13, 3:3, 5-6, 15, 벤후 1:4.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 3: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요 3:5-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⁶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 3: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벤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a.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 종류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시어, 사람이 하나님 종류 곧 하나님 종이 되게 하셨다 — 창 1:26.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b. 믿는 이들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들이며, 아담보다 더 하나님 종류이다 — 요 1:12-13.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1) 아담에게는 겉의 모양만 있었을 뿐 신성한 생명의 내적인 실재는 없었다.

(2)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실재를 갖고 있으며, 우리의 온 존재가 변화되어 주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 — 고후 3:18, 롬 12:2, 8:29.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롬 8: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받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인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 종이 되었다 — 요 3:3, 5-6.

(요 3: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요 3:5-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4)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종류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종류 곧 하나님 종이다 — 롬 8:19, 히 2:10.

(롬 8:19)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 2: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5)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신성한 종의 신성한 영역 안에 있다 — 요 1:12-13, 3:3, 5.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 3: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요 3:5)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6) 믿는 이들은 신성한 종 안에, 곧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사람들이다 — 요일 3:1상, 요 3:5.

(요일 3:1상)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도록,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요 3:5)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F. 우리는 생명의 감각에 의해 신성한 생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산다 — 롬 8:6.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G.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오늘날의 교회생활이 왕국임을 보여 주는 확고한 증거이다.

(롬 14: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H. 우리가 우리 존재 중에서 새 창조물인 그 부분, 곧 하나님의 왕국의 요소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I.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 천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딤후 4:18.

(딤후 4:18) 주님께서 나를 온갖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V.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신성한 종의 영역 안에서 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의 여러 방면을 본다 — 요 1:16, 15:4상, 9, 11, 4:23-24, 14:2, 20, 23, 17:22-24.

(요 1: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요 15:4상)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요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요 15:11)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4:23-24)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²⁴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요 14:2)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요 14: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요 14: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요 17:22-24)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²³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²⁴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A.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 요 1:16.

B.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 요 4:14하.

C.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 요 6:57하.

D.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 요 12:26.

E.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 요 14:2.

F.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 요 14:20.

G.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 요 14:23.

H.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 요 15:4상.

I.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 요 15:7.

J.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 요 15:9.

K.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요 15:11.

L.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

- 다.”,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 드립니다.” — 요 16:33상, 14:27상.
- M.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 요 17:11하.
- N.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요 17:22.
- O.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 요 17:23상.
- P.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시고 ...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 요 17:24.

메시지 5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새로운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

성경: 요 10:11, 16, 21:15-17, 벤전 2:25, 5:4, 히 13:20, 계 1:13, 2:1, 7

-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 (요 10:16)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입니다.
-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¹⁶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¹⁷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 (벤전 2: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 (벤전 5: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 (히 13: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 (계 1:13)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 (계 2:1)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등잔대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I.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심부터 목양하심을 거쳐 오는 시대에 왕권을 얻으심까지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 A.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신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과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에 대해 말하는 시편 22편과,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온 땅을 다시 얻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시편 24편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 B.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목양하시며,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 주님을 다시 모셔 올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II.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계시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 A. 요한복음은 스물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20장으로 끝난다.

B. 요한복음 전체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다룬다.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육체 안의 사람이 되신 것으로 시작해서(요 1:14),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으로 끝마친다(20:22). 따라서 21장은 부록에 해당한다.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20: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C.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좀 더 내재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사도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요한복음 전체를 완결한다.

III.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과 16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 주신다. 이 선한 목자가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다른 양들(이방인들)을 얻으셔서 그들을 이끌어 처음 양들(유대인 믿는 이들)과 함께 결합하여,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요 10:10-11)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¹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요 10:16)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입니다.

A. 주님의 목양하심은 먼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다 — 마 9:36, 비교 10:1-6.

(마 9:36)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 버려졌기 때문이다.

(마 10:1-6)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위를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 주게 하셨다. ²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³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⁴카나나 사람 시몬,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이다. ⁵예수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면서 분부하시며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⁶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십시오.

B. 주님의 목양하심은 다음으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있으며(벰전 5:4),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이다.

(벰전 5: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IV.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셨다.

A. 주님은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하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중 한 번,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들에 있는 동안에 베드로에게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셨다 — 요 21:15-17.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¹⁶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¹⁷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B.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양 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이다.

C.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6:4)라고 말했다. 이것은 중보기도 하시고(히 7:25)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 안으로 공급하시는(8:2)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것이다.

(히 7:25)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 8:2) 그분은 거룩한 곳들의 사역자, 바로 참장막의 사역자이십니다. 그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D.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위임에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서신서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 벰전 2:25.

(벰전 2: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1.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지만, 또한 우리 내적 존재의 상태와 상황을 감독하시며 관찰하신다.

2.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존재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참된 인격인 우리 혼의 상태를 감독하십시오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 비교 히 13:17.

(히 13:17)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결산할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혼을 위해 깨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탄식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탄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E.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라고 권한다. 이렇게 목양한다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신실한 장로들인 그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 벰전 5:1-4.

(벰전 5:1-4)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 ²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³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 떼의 본이 되십시오. ⁴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F.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을 가리킨다.

V. 다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도 사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것임을 보여 준다.

A.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라고 말했다.

B. 바울은 “나는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 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행 20:29)라고 말했다. 사도는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으

며(행 20:24), 자신과 하나님께 보배와 같은 교회의 장래를 매우 염려했다.

(행 20:24)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C.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 하나님께서”라고 말한다.

1. 영원한 언약은 한 양 떼를 얻기 위한 신약의 언약이다. 이 양 떼는 몸으로 귀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목양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큰 목자가 되게 하셨다.

VI.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 비교 엡 3:2, 8-9, 벤전 5:10.

(엡 3: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엡 3:8-9)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벤전 5: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VII.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주된 목표와 궁극적인 완결을 위해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문제는 아가에서도 언급된다.

- A.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말해 주세요. 당신은 어디서 (만족을 위해) 양 떼를 먹이시나요? / 한 낮에는 어디서 (안식을 위해) 양 떼를 쉬게 하시나요?” — 아 1:7상.
- B.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먹이도록 하오.” — 아 1:8하.
- C.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 그이는 백합화들(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답니다.” — 아 2:16.
- D.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답니다.” — 아 6:3.

VIII.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목양하는 길을 취해야 한다.

A.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부흥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목양하며, 사람들을 양 떼처럼 함께 모이게 하고 싶습니다.”

B. 요한복음 10장과 21장에서 주님은 목양에 관해서 ‘먹이다(feed)’, ‘목양하다(shepherd)’, ‘양 떼(flock)’(요 10:16, 21:15-16),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하셨다. 우리는 또한 ‘양 떼’를 ‘모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할 수도 있다.

(요 10:16)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합니

다.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입니다.

(요 21:15-16)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¹⁶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C.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무리지어 모이는지를 배움으로 함께 섞일 수 있어야 한다. 장로들과 동역자들은 앞장서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IX.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금등잔대를 유기적으로 보수하는 것인데, 이 사역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함으로써, 그분의 유기적인 목양을 통해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 계 1:13, 2:7, 요 10:11, 14, 벰전 2:25, 5:4, 히 13:20.

(계 1:13)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요 10:14)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벰전 2: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벰전 5: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히 13: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A. 사람의 아들은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의 표시이다.

1. 그리스도는 허리에 띠를 띠심으로 교회들을 산출하는 신성한 일을 위해 강화되셨지만(출 28:4, 단 10:5), 이제는 가슴에 띠를 띠시고 자신이 산출하신 교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신다(계 1:13).

(출 28:4) 그들이 만들 의복은 가슴받이와 에봇과 겹옷과 각양의 무늬를 넣어 짠 긴 속옷과 두건과 허리띠이다. 이렇게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주어, 그가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단 10:5)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한 사람이 있었다.

(계 1:13)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2.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가슴은 금과 같은 이 힘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발휘되고 사용되어 교회들을 보양하는 것을 상징한다.

B.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며 보살피신다 — 계 1:13상.

(계 1:13상)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1.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여 합당하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하신다 — 출 30:7, 비교 시 42:5, 11.

(출 30:7) 아론은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며,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향을 피워야 한다.

(시 42:5) 내 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여전히 찬양하리, / 그분의 얼굴로 구원하시는 분을.

(시 42:11) 내 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여전히 찬양하리, / 내 얼굴의 구원이시며 내 하나님이신 분을.

a. 주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리의 존재를 보살핌으로써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치료와 씻음과 격려를 준다.

b.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의 보살피는 분위기를 누리면서, 보양하는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있다 — 엡 5:29, 비교 딤후 4:6, 엡 4:11.

(엡 5:29)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피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딤후 4:6)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엡 4: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2.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들의 심지를 손질하시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잘라 내신다 — 출 25:38.

(출 25:38) 등잔 부집계와 불뿔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a. 심지의 검게 탄 부분 곧 불뿔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옛 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라 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상징한다.

b. 그리스도는 교회들 사이의 모든 차이점(잘못과 부족과 실패와 결점)을 잘라 버리시으로써 교회들을 본질과 외양과 표현에 있어서 똑같이 되게 하신다 — 비교 고전 1:10, 고후 12:18, 빌 2:2.

(고전 1:10)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고후 12:18)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으며,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습니다. 디도가 여러분을 이용하였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영 안에서,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빌 2: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C. 그리스도는 가슴에 있는 금띠로 상징된 그분의 신성과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심으로써 보양하신다 — 계 1:13하.

(계 1:13하)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시므로써,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하신다.

2. 거니시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각 교회의 상태를 알게 되시며,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등잔대들을 정돈하시고, 신선한 기름이신 그 영을 공급하시어 등잔대들을 채우신다 — 계 2:1, 7, 비교 출 27:20-21, 스펴 4:6, 11-14.

(계 2:1)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등잔대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출 27:20-21)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올리브 열매를 찢어서 짜낸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불을 밝히되, 등불이 항상 타오르게 하여라. ²¹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안의 증거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이다.”

(속 4:6)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다.

(속 4:11-14) 그때 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입니까?” ¹²내가 두 번째로 그에게 말하였다. “두 금대롱 옆에 있는, 금을 흘려 보내는 두 올리브가지는 무엇입니까?” ¹³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¹⁴그가 말하였다. “이들은 기름의 두 아들로서, 온 땅의 주님 곁에서 있는 이들입니다.”

3.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한다.

X.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을 통해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우리의 복으로 누릴 것이다 — 사 49:10, 계 7:9-17, 요 6:35, 4:13-14, 시 36:7-9, 91:1, 사 12:1-6, 계 22:1.

(사 49:10) 그들은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겠고 / 뜨거운 열이나 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니 /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인도하며 / 그들을 샘물가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 7:9-17) 이 일들이 있는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 흰 겹옷을 입고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¹⁰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구원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습니다.” ¹¹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¹²“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히 있습니다. 아멘.” ¹³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응답하여 “이 흰 겹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라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¹⁴그래서 내가 그에게 “장로님, 장로님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겹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¹⁵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¹⁶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나 어떤 뜨거운 열이 그들에게 내리조이지 않을 것입니다. ¹⁷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6:35)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 4:13-14)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¹⁴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시 36:7-9) 오, 하나님! 주님의 자애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 그러하기에 사람의 아들들이 주님의 날개 그들로 피합니다. ⁸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⁹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시 91:1)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는 /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하리라.

(사 12:1-6) 그날에 너는 말하리라. / “오, 여호와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제게 진노하셨으나 /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²이제 하나님은 저의 구원이시니 /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렵니다. / 야 여호와께서 제 힘과 노래이시며 / 제 구원이 되신 까닭입니다.” ³그러기에 너희가 구

원의 샘들에서 / 기뻐하며 물을 길으리라. ⁴그날에 너희는 말하리라. /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알리며 /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심을 일깨워 주어라. ⁵여호와를 찬송할지니 그분께서 장엄한 일을 하셨음이라! / 온 땅이 이것을 알게 하여라! ⁶외치며 환호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 가운데 위대하신 까닭이라.”

(계 22: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6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성경: 요 21:15-17, 행 20:28, 벧전 5:2, 4, 엡 4:16

-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¹⁶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¹⁷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 (행 20: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 (벧전 5: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을 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 (벧전 5: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I.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는 목양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

II.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 떼를 돌보는 것이다 — 요 21:15-17, 행 20:28.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¹⁶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¹⁷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행 20: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 A. 목양하는 것은 양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것을 가리킨다.
- B. 모든 양들은 충분히 공급을 받고, 세심하게 돌봄을 받아야 한다.

III.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 우리 혼의 목자이시다 — 요 10:9-17, 히 13:20-21, 벧전 5:4, 2:25.

(요 10:9-17)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고 나올 것이며, 또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¹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¹¹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¹²삯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 가고 흩어지게 합니다. ¹³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이어서 양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¹⁴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¹⁵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 ¹⁶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입니다. ¹⁷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히 13:20-21)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²¹온갖 선한 일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벧전 5: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벧전 2: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A.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요 10:10-11.

(요 10:10-11)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1. 그분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혼생명 곧 인간 생명을 버리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분의 조에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요 10:11, 15, 17.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요 10:15)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

(요 10: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2. 그분은 그분의 양들을 우리에서 나오게 하시어, 먹이는 장소인 풀밭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분을 자유롭게 먹고 그분에게서 보양을 받을 수 있다 — 요 10:9.

(요 10: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고 나올 것이며, 또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3. 주님은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그분의 목양 아래 한 양 떼(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다 — 요 10:16.

(요 10:16)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입니다.

B. 하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다 — 히 13:20.

(히 13: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1. 영원한 언약은 목양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한다는 것이다.
2. 영원한 언약은 한 양 떼를 얻고자 하는 새 유언의 언약이다. 이 양 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이다.

- C. 목자장으로서 그리스도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통해 그분의 양 떼를 목양하신다 — 벰전 5:4.
(벰전 5: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1. 장로들의 목양이 없다면 교회는 건축될 수 없다.
 2. 장로들의 목양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 목양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 D. 우리 혼의 목자로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황을 돌보신다 — 벰전 2:25.
(벰전 2: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1. 그분은 우리 혼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2. 우리의 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을 목양해 주시는 것,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여러 문제와 필요와 상처를 돌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IV.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공급해야 한다.

- A.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이 요구된다 — 요 14:20, 고전 6:17, 엡 3:17상, 골 3:10-11.
(요 14: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엡 3:17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B. 하나님을 사는 이들만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다 — 빌 1:21상.
(빌 1:21상)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 C.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어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 창 1:26, 엡 1:11, 3:11, 딤후 1:9.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엡 1:11)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엡 3:11)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딤후 1:9)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 D.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자 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 고후 1:3-4, 12, 15-16, 2:10, 10:11, 11:2.
(고후 1:3-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⁴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 해 주시어, 우리 자신이 그분께 받은 그 위로로 각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고후 1: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후 1:15-16) 전에 나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두 배의 은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¹⁶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마케도니아로 간 다음,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전송을 받으며 유대로 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고후 2: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고후 10:11) 그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것에서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후 11: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E.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1.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는 생명을 흘려 보내기 위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얼마나 파쇄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 고후 4:10-12, 16, 히 4:12.

(고후 4:10-12)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¹¹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¹²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고후 4: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히 4: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와 영과 생명에 속한 말을 하여, 우리의 존재 안에 일해 넣어지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해야 한다 — 엡 3:16-17상, 4:25, 29, 요 6:63.

(엡 3:16-17상)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엡 4:25)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벗어 버렸으니,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엡 4:29)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V.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라고 당부했다 — 벰전 5:2.

(벰전 5: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 A. ‘하나님을 따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 B.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일 때 하나님이 되며,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다.
- C.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우리의 선호나 흥미나 목적이나 기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길과 영광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 D.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어떠함에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 E.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1.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져야 하고, 원천과 샘과 강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림으로 신성한 생명의 총체가 되어야 하며, 심지어 신성한 생명 자체가 되어야 한다 — 요 4:14, 골 3:4.
 (요 4: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2. 우리는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 목양할 때 기질과 특이함을 지닌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
 4. 하나님은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경륜의 목표에 따라 양 떼를 목양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양 떼를 목양하시는 하나님의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VI.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은 상호 목양이다 — 고전 12:23-26.

(고전 12:23-26) 우리는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입혀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지만, ²⁴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²⁵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²⁶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 A.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 아래 있어야 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다른 이들을 목양해야 한다 — 요 21:15-17.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¹⁶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¹⁷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 B. 모든 믿는 이들은 생명이 얼마나 자랐든 목양이 필요하다.
- C. 우리는 모두 결점과 부족이 있으며, 우리를 목양해 줄 다른 이들이 필요하다.
- D. 우리는 양들인 동시에 목자들로서 서로 목양하고 목양받는다.
- E. 이러한 상호 목양을 통해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 엡 4:16.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